



영국 스포츠 매체 '기브미스포트'에 따르면 LAFC가 여름 이적 시장 막판에 손흥민을 영입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 매체는 "현재 손흥민과 계약 조건에 근접하고 있다"고 전했다. EPA=연합뉴스

폭염 날릴 축구쇼... 유럽 축구 ★ 떴다

오늘부터 쿠팡플레이 시리즈... 뉴캐슬 vs 팀K리그 등 4차례 빅매치

유럽 축구 빅클럽들이 한국을 찾아 무더위를 날려 보낼 시원한 '축구쇼'를 펼친다. 뜨겁게 순위 경쟁을 펼치던 프로 축구 K리그가 휴식기에 들어간 가운데 30일부터 8월4일까지 4차례 '빅매치'가 한국 팬들을 찾는다.

2022년 시작해 연례 여름행사로 자리 잡은 쿠팡플레이 시리즈가 '월드 스타'를 앞세워

K리그와 대결한다. 31일 오후 8시엔 15년 만에 방한하는 바르셀로나가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FC서울과 대결한다. 축구팬들의 시선은 리오넬 메시(미애미)의 뒤를 이을 특급 골잡이로 주목받는 18세 라민 야말에게 집중되고 있다. 야말은 지난 시즌 55경기에서 18골을 터뜨리며 바르셀로나가 라리가와 국왕컵 '더블(2관왕)'을 달성하고 슈퍼

컵에서도 정상에 올라 국내 3개 대

구단을 불러들여 2경기를 치르고, 스페인의 스타 군단 FC바르셀로나도 한국을 찾아 K리그 팀들과 2경기를 벌인다.

EPL 강호의 지위를 되찾은 뉴캐슬이 스타트를 끊는다. 30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K리그 올스타팀인 '팀

회 우승을 모두 이뤄 내는 데 앞장섰다. 야말 외에도 로베르트 레만도프스키 등 특급 스타들이 즐비한 바르셀로나는 8월4일 오후 8시엔 대구스타디움에서 대구FC와 방한 두 번째 경기를 치르고 스페인으로 돌아간다.

더위에 지친 맹수들... KIA·삼성 역전패 휘청

호랑이와 사자 '맹수'를 팀의 상징으로 하는 KIA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가 무더위에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승률 5할로 나란히 공동 5위를 달리는 두 팀은 특히 불펜 난조로 다 잡았던 경기를 자꾸 놓쳐 지난주에 답답한 행보를 이어 갔다.

이달 초 한때 단독 2위까지 치고 올라가며 기대를 높였던 KIA는 최근 11경기에서 1승 10패라는 최악의 난조에 빠졌다.

지난주 LG 트윈스와의 홈 3연전을 다 내주는 과정은 몹시 안 좋았다. 22

일 경기에서는 8회말 대거 6득점 하며 7-4로 역전해 기분 좋은 승리를 챙기는 듯했지만, 곧바로 9회 5실점 하며 7-9로 졌다. 23일에도 0-4로 끌려가던 경기를 7회말 4득점 하며 기껏 원점으로 돌리고도 연장 10회에서 2점을 내줘 5-6으로 무릎 꿇었다.

24일엔 0-0으로 팽팽히 맞서다가 8회에만 8실점하고 '와르르' 무너졌다. 올해 9회 이후 역전패 횟수를 따져 보니 KIA가 3번으로 10개 구단 중 가장 많았다.

'불펜 문제'에서 배놓을 수 없는 팀은 또 삼성이다. 27일 kt wiz를 상대로 3-0으로 앞서던 경기를 9회 4실점 하며 허무하게 날렸다.

손흥민, 정말 LAFC서 뛰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의 '캡틴' 손흥민(33)이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로스앤젤레스 FC(LAFC)와 이적 협상에 근접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영국 스포츠 전문 매체 '기브미스포트'는 29일(한국시간) "LAFC가 이번 여름 이적 시장 막판에 손흥민을 영입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며 "현재 손흥민 측과 계약 조건에 근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손흥민은 토트넘의 아시아 프리시즌 투어에 참가하고 있고, 8월3일 한국에서 열리는 뉴캐슬(잉글랜드)과의 친선전에 출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

영 매체 "LAFC와 이적 조건 근접"이라면서 "33세 된 손, 토트넘과 결별 원하면 팀도 계약 1년 남았지만 풀어줄 것"

경기 이전에 토트넘이 손흥민을 이적시키면 예정 수익의 상당 부분을 잃을 수 있다. 아시아 투어 전까지 이적과 관련한 공식 발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토트넘은 손흥민을 잔류시켜 자유계약으로 떠나게 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33세가 된 손흥민이 새로운 도전을 원한다면 막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

였다. 2015년 8월 토트넘에 입단한 손흥민은 지난 1월 2026년 여름까지 계약을 1년 연장하는 옵션 계약에 합의했고, 최근 다양한 이적 루머가 떠오르는 상태다.

특히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질되고 토마스 프랑크 감독이 새로 지휘봉을 잡고 팀 개편에 나서면서 올해 33살이 된 '베테랑 공격수' 손흥민의 입지도 불투명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이적설을 부추기는 상황이다.

이미 손흥민은 지난 시즌부터 토트넘과의 계약 연장 확정 소식이 지체되면서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이상 스페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 페네르바체, 갈라타사라이(이상 튀르키예) 등이 차

기 행선지로 떠올랐다. 하지만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클럽과 LAFC가 떠오르더니, 점차 LAFC가 유력한 이적 후보로 좁혀지는 모양새다.

기브미스포트는 "토트넘이 손흥민 영입을 위한 협상을 진전시키고 있다. 토트넘은 손흥민과의 계약을 1년 남겼지만 이번 여름 손흥민의 이적을 허용할 의사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손흥민의 영입전에는 2023년부터 영입 희망을 버리지 않은 사우디아라비아 클럽도 가세했다"며 "사우디아라비아 측 소식통에 따르면 손흥민 영입에 4000만 달러와 추가 옵션까지 제안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선미디어

고전을 통해 만나는 현대인의 치인치세 해법

황종택 칼럼 신은고지신 시리즈 1

고전, 당신의 **생각**을 바꾼다

334쪽 | 15,000원

황종택 칼럼 신은고지신 시리즈 2

고전, 당신의 **행동**을 바꾼다

336쪽 | 14,000원

황종택 칼럼 신은고지신 시리즈 3

고전, 당신의 **미래**를 바꾼다

324쪽 | 14,000원

화제의 책 ★★★★★

언론인 출신 인문학자의 고전 해석 통한 사회적 문제점 해법 제시